

‘내 글’과 대화하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필자는 교양 강좌인 〈문학 개론〉의 한 강의 내용에 마음을 사로잡힌 일이 있었다. 그 강의의 주제는 ‘이야기 자체가 지니는 힘’ 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야기’는 결코 작자 혹은 화자의 의도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야기의 토막이 글로 쓰여지든 음성으로 발화되든, 이야기가 한 번 세상에 나오면 그것은 그 뒤의 이야기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곧 흔히 서사 문학의 특성으로 규정하는 ‘개연성’의 개념인데, 실제로 이야기가 소통되고 전승되는 맥락에서 ‘개연성’ 개념은 단순히 ‘있음직함, 그럴듯함’에서 머물지 않는다. 이야기 전체를 ‘앞뒤가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야기는 그것이 형성되고 다시 발화되고 전승되는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미 등장한 상황이나 인물들은 촘촘하게 짜여 하나의 견고한 세계를 이루어 간다. 그리고 이 세계의 개연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작가는 흔히 창조자가 누릴 수 있다고 믿어지는 무한한 자유를 포기하고 이야기 내부의 질서와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내용을 조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힘’에 대하여 소설가 김영하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이야기의 주인은 이야기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빌려 자신들의 유전자를 실어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한다.¹⁾

미타니 코키 감독의 영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²⁾는 일견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 ‘이야기 자체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 편의 라디오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제작 및 방송하는 과정에서의 해프닝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본디 일본의 한 어촌 마을에서 전개되는 잔잔한 사랑 이야기였어야 할 드라마가 그것을 연기하는 사람들의 변덕스런 개입으로 수차례 변형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일은

변 혜 원
서울대 인류학과

1) 소설 『아랑은 왜』의 한 대목. 김영하, 『아랑은 왜』, 문학과지성사, 2001.

2) 원제 “ラジオの時”, 1997년작.

업계 내에서 위세를 가진 주인공 역의 여배우가 주인공의 이름이 촌스럽다며 그것을 영어 이름인 ‘메리 제인’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야기에 무리한 수정을 가한 이 최초의 변형은, 필연적으로 계속적인 수정으로 연결된다. 낙후된 일본 마을의 여인이 ‘메리 제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야기의 규칙, 즉 개연성은 이 어색한 상황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제작진은 황급히 이야기의 배경을 뉴욕으로 옮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뉴욕이라는 거대하고 번화한 도시에서, 애초에 라디오 드라마의 큰 출기였던 시골 여인의 잔잔한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에서는 자신들의 소망대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스태프들의 의지와 끊임없이 개연성을 요구하는 이야기의 의지가 뒤엉키고 타협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야기가 구체화될수록 그 안의 세계와 이야기 자체의 구조는 뚜렷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작가의 선택지는 명확하게 한정된다. 이러한 면에서 탄탄한 긴장과 필연성으로 완결된 한 편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잘 짜여진 이야기의 구조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개연성과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훌륭하게 협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학적 서사에서 엿보이는 ‘이야기의 힘’은, 비단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글이 다루어야 할 주제인 학문적인 글쓰기의 영역에서도, 글쓰는 이의 의도와 경합을 벌이는 이야기 혹은 글 자체의 힘은 분명히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은 글쓰는 작업 전체를 크게 도울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야기가 전적으로 그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듯, 학문적 글의 내부에도 끊임없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요구하는 힘이 존재한다. 문학의 영역에서 그러한 힘을 ‘개연성’이라고 부른다면,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논리성’이 그에 상응하는 말이 될 것이다. 잘 짜여진 이야기가 이야기 내부의 개연성과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훌륭하게 협력한 결과라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잘 쓰여진 학문적인 글도 논리적 흐름과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긴밀하게 맞물려서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논리적 흐름과 글쓰는 이의 메시지가 조화롭게 조작된 글을 쓰기란 사실 결코 쉽지 않다. 논리성을 추구하는 글의 의지를 무시하면 글은 체계가 없고 산만해지기 쉽다. 반면 글쓰는 이 자신의 의지보다 글의 흐름을 우선하다 보면 당초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바와

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글이 흘러가고 맷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어느 쪽도 좋은 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서론, 본론, 결론을 명확히 나눌 것과 각 문단의 논리 구조를 ‘주제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라는 기본적인 형식으로 구성할 것을 권유하는 글쓰기 수업의 규범들은, 이 생명력 넘치는 글 자체의 힘을 눈에 보이는, 제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우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돋는 한 방편일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흐름’ 혹은 ‘논리성’을 추구하는 글의 생명력이 과연 글쓰기를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만드는가? 다시 문학적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야기의 의지는 이야기가 개연성을 잃는 지점에서 이야기의 균열을 만들어 놓는다.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의 뒷부분에서는 원작의 흐름상 주인공 메리 제인이 바다에 빠져야 하는데, 영망진창으로 수정된 드라마의 배경이 시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바다가 없는 시카고에서 난데없이 바다에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결국 스태프들은 메리 제인이 바다에 빠지는 대신 댐 붕괴 사고에 휩쓸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수정한다.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만들어 놓은 균열은, 그것을 형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주는 것이다.

학문적 글쓰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존재한다. 글을 쓰다 보면 글의 흐름이 끊기거나, 앞에 썼던 내용과 모순이 발생하거나, 논의의 밀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색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균열들은 좀 더 탄탄한 논리성을 위해 글의 수정을 요구한다. 이 점이 바로 ‘글의 목소리’가 ‘글쓰기를 도울 수 있는’ 지점일 것이다. 글쓰는 이 스스로가 혼란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못할 경우, 글은 그 흐름상의 균열을 통해 그러한 부족함들을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지적해 준다. 글의 균열이 보여주는 논리성의 허점들은, 단순히 글의 표현과 구조를 수정하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논지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정보 수집이나 글의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을 유도하기도 한다. 생각의 도구이자 배움의 도구이기도 한 글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쓰는 과정은 지금 쓰고 있는 바로 그 글과의 ‘대화’인 것이다. 글은 글쓴이의 일부가 아니며,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도 아니다. 발화자의 입을 떠난 음성 언어가 더 이상 전적으로 발화자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듯이, 글도 쓰여지는 순간 그 내용에 얹힌 글쓴이의 내면과는 분리된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다루기 쉽지 않은 매개를 이용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해야 하는 글쓰는 이로서

는, 자신이 글에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였는가와 실제로 쓰여진 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많은 경우 어색하고, 웬지 모르게 부끄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작업이다. 그러나 스스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지 않으면, 그 글을 더 좋은 글로 만들 수 있는 글 내부의 가능성을 스스로 놓쳐버리고 마는 셈이 된다.

흔히 글은 ‘소통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글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글이 글쓴이와 완벽히 같은 존재는 아니다. 글쓴이에 의해 체계가 짜여지고 글쓴이의 사고를 담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글은 글쓴이의 사고 및 의도 가운데 선택된 것들만을 담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것을 읽는 타인은 다시 그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 글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해석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글은 글쓴이로부터 독립된 실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자뿐만 아니라 글쓰는 이 스스로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글쓰는 이와 글 사이의 대화가 풍부하게 일어나, 그들 사이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만든 연후에야, 글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해 및 왜곡 없이 분명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글과 글쓴이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져, 글쓴이가 논리적 흐름을 추구하는 글의 요구에 응하고, 글이 글쓴이를 만족할 만큼 납득시키는 것이야말로,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글의 출발점이 아닐까.

제10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주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자격]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상] 2009년 1학기 전공 및 교양 수업 리포트(핵심교양, 졸업논문 제외)

[응모 기간] 6월 중순 ~ 7월 중순(홈페이지 공지 및 전체 메일 알림)

[심사결과 발표] 2009년 9월 1일(화)

[상금]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5명: 20만원

[응모 방법] 응모 기간 동안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

‘우수리포트 공모전’ 배너 통해 접수